

國際表面處理會議의 參席을 마치고(I)

(INTERFINISH 92)

1. 학회에 참석하기까지

이 회의는 1992년 10월 5일부터 9일까지 5일간 개최되었는데 금년 10월에도 멜보른에서 개최될 예정이어서 과거 이 회의에 참석한 사람은 참석하지 못한 분들을 위하여 참석기를 쓰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어 상당히 늦은 감은 있으나 본지에 게재하기로 하였다.

이 회의의 정식 이름은 INTERNATIONAL CONGRESS FOR SURFACE FINISHING 이고, 이의 主權은 INTERNATIONAL UNION FOR SURFACE FINISHING(IUSF)으로 國際表面處理聯盟이라고 할 수 있다.

이 회의에 참석을 하게 된 것은 1990년 11월 19~22일 IUSF의 태평양支部인 ASIA PACIFIC INTER-FINISH 90이 싱가포르에서 開催되었을 때 브라질의 표면처리학회 회장인 Mr. Volkmar Ett와의 약속 때문이기도 하다. 이때 Mr. Ett는 韓國表面工學會의 가입을 적극 권유했고 브라질에 참석할 것을 약속한 바가 있다. 싱가포르의 회의에서도 약 70편의 논문이 발표되었었지만 참석자도 미국을 위시하여 영국, 독일, 네덜란드, 이태리, 브라질 등의 세계 각국에서는 물론 일본, 중국, 대만, 말레이시아, 호주, 싱가포르, 한국 등으로 과거 일본서 개최했던 제2회의 아세아 표면처리 포럼이나 우리나라가 올림픽 다음해인 89년 9월에 개최했던 제3차 아세아 포럼인 ASIAN FINISH '89(THE 3rd ASIAN SURFACE FINISHING FORUM)에 비할 바 아닌 폭 넓고 깊이가 있어서, INTERFINISH 92에 필히 참석할 것을 결심하였었다. 그러나 내심, 브라질은 후진 나라이면서도 인플레이션이 심한

나라이므로 이러한 국제회의를 할 수 있을까 의심하기도 하였다. 그러면서도 브라질은 지구의 반대편이며, 낭만의 나라라는 막역한 생각도 나의 참석을 자극시켰다.

2년이라는 세월은 어느덧 닥쳐 왔다. 각국 표면처리학회의 단일화와 국제 표면처리연맹에의 우리나라 가입을 위하여 노력을 해 왔든 결과로서 우리 학회가 이사회 및 IUSF의 가입승인을 얻은 상태에 있었다. 이로서 여행사에도 사전 예약 등을 위하여 준비를 시작하였다. 미리 입수한 INTERFINISH 92 유인물로 상파울로의 호텔예약, 또한 브라질 국내의 여행을 위한 항공기 및 호텔예약 등을 FAX로 마치면서, 3일 걸려서 미국 비자를 우선 얻고, 브라질의 비자는 약 15일 걸려서 겨우 출발 전날인 9월 30일에야 얻었다. 어느 면에서는 브라질비자가 미국보다 더 까다로워서 의아하게 생각했었다. 미국이라면 불법체류자를 방지하는 의미에서 비자를 까다롭게 하겠는데 브라질은 더욱 서류도 많고, 시간도 더 걸렸다. 이러한 까다로운 이유는 브라질에서 우리교포에게서 의문을 풀었다. 즉 브라질은 지하자원이 많아서 외국사람들에게 이것들을 빼앗긴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외국사람들의 입국이 달갑지 않은 것이다. 다른 나라와 같이 관광사업보다는 천연자원의 보호가 우선하는 것 같았다.

드디어 10월1일 11시의 Northwest항공으로 LA를 향하여 출발하였다. 당일로 브라질을 가는 것은 24~26시간의 장기 비행이므로 건강상 삼가는 것이 좋을 것이라는 권고도 있었으나 LA에서 3시간 머문 후 출발하는 브라질 항공 VARIG을

택했다. 아침 10시경에 11시간반 만에 LA에 도착하여 오후 1시경 INTERNATIONAL 청사(KAL도 같은 곳에 있었다)에서 탑승 장장 12시간반 만에 SAO PAULO에 도착하였다. 탑승한 VARIG는 점보제트 여객기였으나, 탑승객은 50% 정도였으므로, 옆의 의자를 겹어서 누워 갈 수 있었다. 그 이튿날 아침에 멎은 곳은 많은 사람이 내렸으나, 알고 보니 리오데자네이로이며, 리오는 전에 수도였기 때문에 모든 비행기는 여기를 기점으로 출발하므로 반드시 여기서 일단은 머문다는 것이었다. 약 1시간여 후 출발하였다. 그 비행기내에는 아르헨티나의 수도 부에노스아이레스로 가는 한국 이민의 한사람이 있었는데 이분은 이 VARIG를 계속 타고 간다고 했다. 여기서 한시간 여만에 아침 9시45분에 상파울로에 도착하였다. 비행기내에서 찾아갈 호텔과 SAO PAULO에서 연락할 여행사의 전화번호 등의 서류를 찾았는데 아뵘새 그 서류봉투기를 잘 화일해 놓고도 잊은 것이 아닌가. 할 수 없이 공항청사의 안내소를 찾기 시작했다. 영어가 잘 통하지 않아 이리저리 청사 1층에서 3층까지 오르락내리락하여 결국은 1층의 비행기 출구 근처에서 여행자 안내소를 찾았다. 우선 예약한 호텔을 찾아야 하는데 이름이 생각나지 않았다. 이 안내소에는 오십대의 백인 부인이 혼자 있었다. 영어로 무엇을 도와 줄 건가를 물어왔다. 호텔 이름을 잊었다고 하였더니 호텔 명단을 주었다. 우선 4스타의 호텔로 생각되어, 4스타중 이름이 길고 낮익은 듯한 호텔이름을 찾아냈다. 이 호텔에 내 이름으로 예약이 되어 있나를 문의해달라고 했다. 전화를 하더니 예약이 된 호텔이라고 하였다. 또한 이름만은 알고 있는 학회지정 여행사와 한국여행사의 전화번호도 안내원을 통하여 알게 되었다. 지극히 안심하면서 안내원의 친절에 감사를 드렸다. 공항에서 전화를 하려면 전화전용 코인을 점포에서 사야 했다. 여기서 한국여행사와 호텔에서 만나기로 하고 택시를 탔다.

택시로 호텔을 가는데 이들 택시는 미터도 없어서 바가지가 우려되었다. 작년 로마에서 개인택시를 잘못 타고 30분 정도에 6~7만원(10만 리라)

을 지불(생애 최고의 택시요금)한 후는 바가지 노이로제도 있었기 때문이다. 상파울로의 거리는 지저분하였다. 길가에는 페인트칠한 가드레일은 녹이 슬었고, 광고는 페인트가 아니라 인쇄된 대형 종이를 부착시킨 것이 대부분이었다. 거리의 건물들때가 낡 더러운 것들이 많았다. 나중에 네덜란드 학회 참가자와의 시내 관광때 그 친구는 이러한 때 묻은 건물은 그들의 생활태도 즉 계엄에서 오는 것이 아닌가라고 했다. 이윽고 호텔 Eldorado Higienopolis에 도착, 택시료를 지불하게 되었다. 그때 택시 운전사는 프린트한 유인물을 내놓고 보이면서 12만 5천 쿠루세이로스(10월 1일 공항의 은행에서 100불에 680,000쿠루세이로스 교환) 즉 약 30분정도의 거리에 약 1만 5천원 정도이고 또한 유인물 그대로의 액수이므로 안심하였다. 그 후 호텔에서 공항까지 2번 왕복하였는데 125,000에서 130,000쿠루세이로스 브라질 택시는 바가지는 없었다.

다음 날 세계 최대인 이과수 폭포 관광을 떠나기로 하면서 VARIG 비행기와 호텔을 예약해준 한국여행사로부터 사전 정보를 입수하였다. 그곳에는 한국 안내원이 있는데 하루의 안내료가 100불정도이며, 승용차로 안내한다고 전화번호도 알려 주었다. 예약된 호텔은 5성 호텔이며, 130불이라고 여행사에 예입금해야한다고 하여 예입금하였다. 크레디트 카드는 받지 않아서 여행자 수표로 결제하였다. 항공료는 270불, 거의 모든 요금은 미불을 요구했고 또한 이렇만한 이유도 있었다. 한달에 25% 정도의 환율변동으로 브라질돈으로 받으면 10일 후면 10% 정도의 손실을 보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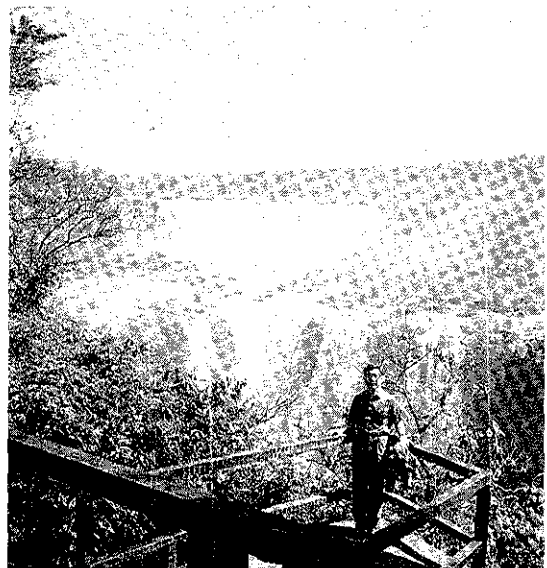
10월 2일 상파울로를 9시15분에 VARIG 항공으로 출발하여 10시55분에 이과수 공항에 도착하였고 택시로 이곳의 최고급 호텔인 Bourbon호텔로 갔다. 최고급이지만 그리 웅장한 호텔은 아니고 수영장과 넓은 산책 숲이 있어서 아침 저녁으로 숲속을 산책하기에 아주 좋았다. 브라질서는 어느 호텔이나 아침식사는 포함된 요금이었다. 여기서 일러준대로 안내원을 택할 것인가 기타 대중교통을 택할 것인가를 망설이면서 호텔의 짐 날라주는 보

이를 보고 여러가지를 질문하였다. 폭포는 한시간에 한번씩 운행하는 버스로 가도 되나 개인회사의 택시를 이용하면 어떠한 것이었다. 요금을 물어보니 하루 종일 승용차로 안내하는데 55불이라는 것이었다. 한국사람의 100불보다 값이 싸다. 2일 오후와 3일 오전으로 쪼개도 된다는 것이다. 2시에 예약하고 점심을 먹었다.

2시 정각에 택시가 와 있었다. 택시의 표시도 없는 일반 승용차로서 개인 안내원이었다. 2일은 브라질 쪽의 폭포 관광이고 3일 오전은 아르헨티나 쪽의 폭포 관광이라는 것이었다. 요금은 총 55불, 보이 말대로였다. 약 20분정도 달리니 그림에서만 보던 아름답고 웅장한 폭포가 눈에 들어 왔다. 안내원이 쭉 따라다니며 설명을 해 주었다. 큰길 밑에 폭포수의 물줄기를 따라 길이 나 있어서 이것을 따라서 폭포를 구경했다. 어떤 곳은 폭포의 바로 밑에까지 들어갈 수 있어서 폭포의 물방울이 온 몸으로 불어 닦였다. 이들 폭포는 그림에서와 같이 3~4km의 길이로 퍼져 있고, 태고에 넓은 강폭 중간에서 300~400m폭의 地層이 60~150m 밑으로 침몰해서 생긴 폭포였다. 폭포수의 수는 300개에 이른다고 한다. 이들 폭포를 따라서 약 2시간에 걸쳐 도보로 구경을 했고, 끝부분의 폭포는 거대한 폭포가 낙하하는 바로 밑이었고 폭포의 소리와 날아오는 물방울 웅장한 그리고 수만톤의 물이 한꺼번에 떨어지는 광경, 그야말로 환희를 느끼게 했다. 이것을 끝으로 수직인 몇십 미터 높이의 엘리베이터로 올라가서 택시가 대기하고 있는 큰길로 올라갈 수가 있었다. 이 끝 부분에도 아름다운 호텔이 있었는데 이 호텔은 겉보기보다는 좋지 않은 모양이었다. 상파울로의 한국여행사는 이 호텔을 소개하면 고객으로부터 불편했다는 이야기를 들어서 나에게 제일 좋은 호텔을 소개했다고 했다. 이 폭포의 끝부분에서나 위의 도로가에는 어디서나 마찬가지로의 바가지 상흔을 유감없이 발휘하고 있었다. 이 과수 폭포의 그림도 다른 것보다 2배 가까웠고 아이스크림은 3배를 받았다. 호텔로 돌아온 것은 3시간후인 4시경이었다. 안내원(30여세의 백인)에게 우선 약속 금액의 반 정도인 \$30쯤을 출까하

고 물었더니 내일 9시에 다시 와서 아르헨티나 쪽을 안내할 것이므로 내일 합해서 모두 달라고 했다. 한국 같으면 혹 손님이 가버리거나 취소할지도 모를 일이라서 오히려 60% 전도는 요구할듯 하나 믿어주어 내심 기분이 좋았고 여기는 신용사회라고 생각했다. 오후 4시는 아직 덥고 해가 많아서 호텔의 풀장에서 수영을 하였다. 여기에는 90%가 부부 또는 연인들이었으며, 최소한의 몸을 가린 수영복의 여자들이 이곳 저곳에 누워서 주로 일광욕을 하고 있었다. 나도 운동겸, 눈요기겸, 기념겸 해질 때까지 수영장에서 물속으로 들락 날락하면서 비치 소파에 누어 일광욕도 하였다. 밤에는 심심하여 숲속으로 운동을 나갔다. 숲속에는 요소소스에 전등이 있고 각기 다른 한가지씩의 운동기구를 15m 정도의 거리마다 설치하여 산책겸 운동도 하게 되어 있었으므로 아무도 없는 조용한 숲속에서 혼자서 산책하며 30~40분간 운동을 하였다.

다음날 9시에 어김없이 안내원이 승용차를 가지고 호텔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약 5분쯤 차로 달려서 아르헨티나의 국경을 통과했다. 안내원의 신고만으로 곧 통과했다. 역시 숲이 많고 여기저기 휴양지의 건물 같은 꽤 아름다운 집들이 눈에 띄었다. 우리가 생각하는 후진나라라고는 여겨지지 않았다. 구라파의 어느 시골 같은 기분이다. 2차선의



아스팔트를 20~30분간 달려서 폭포까지 갔는데 종강에 초소가 있어서 폭포지역의 입장료로 4불을 지불했다. 얼마간 숲 지대를 통과하여 폭포 지역에 도착하였다. 고등학교 및 대학생을 포함, 많은 일본 관광객을 위시하여 많은 각국 관광객들이 관광 버스를 타고 와있었다. 10월이지만 아열대지방인 이곳에는 모두 여름복 차림이며 어제의 브라질 쪽 보다는 더 많은 사람들이 들끓었고 폭포자체도 더 화려하고 위에서 내려다보는 광경이므로 폭포를 폭 넓게 볼 수 있었다. 폭포위의 강줄기와 이곳의 숲, 그리고 어느 형태로 폭포가 생겼는지도 볼수가 있었고 폭포 바로 밑이나 위에서 볼 수가 있어 그야말로 장관이었다. 대체로 브라질쪽은 폭포를 멀리서 본다고 하면 아르헨티나쪽은 바로 옆에서 본다고 생각하면 된다. 이 관광은 약 1시간 계속되었고 나이가가라의 4배나 된다는 세계최대의 폭포는 자연의 위대함을 느끼게 되고 실로 꿈에 그리던 것이 눈앞에 있다는 감개무량한 감정은 몸 전체를 흔들어 놓기에 충분하였다. 돌아오는 길에 흑시나 선물이 있겠나 해서 브라질의 토산품점을 어제에 이어 한번 더 3~4km를 돌아서 호텔로 돌아왔다. 그리고 안내료는 얼마냐고 물었다. 55불이라고 똑 같은 이야기다. 우리나라 안내원이나 택시운전기사 같으면 토산품점을 더 갔으므로 시간을 더 끌었기에 돈을 더 내라고 할텐데 그러한 언사나 더 받아야 한다는 태도는 전혀 볼 수가 없었다. 다시 말해서 신사들이었다. 따라서 알아서 5불을 더하여 60불을 주었더니 대단히 감사하였다. 이날(4일) 5시 15분에 출발예정이므로 시간이 4시간이나 여유가 생겼다. 약 두시간 동안 호텔의 수영장에서 수영을 하고 이과수공항으로 갔다. 시간이 있어서 공항은 행에서 환전을 하려고 하니 현금이면 700,000 쿠루세이로스이고 여행자수표이면 680,000쿠루세이로스라는 것이었다. 한국의 여행사의 증고로 여행자수표를 대부분 현금으로 바꾸어 가지고 간 것이 손해를 본 셈이었다.

2. 학 회

10월5일은 드디어 학회가 시작하는 날이다. 아

침 7시30분에 호텔정문 앞에 학회행 전용버스로 약 한시간후에 회의장에 도착하였다. 회의장은 걸 으르 보니 안에서 보나 박람회장같은 임시의 가건물같은 인상이 들었고, 우리들의 KOEX 전시장 같은 것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었다. 회의장은 한 원형의 돔 같은 넓은 건물속의 광장에 모든 것이 들어있었다. 이 속에는 학회사무국겸 VIP 휴게실이 있고 여행사의 사무실도 있어서 항공표, 학회도중 가족이나 관광을 희망하는 회원을 위한 단체여행 접수 등을 취급하는 곳이 있고, 5개의 세미나실 등이 넓은 범위로 흩어져 있었다.

VIP실에서 2개월전에 FAX로 참가료 \$425을 미리 지불한 바가 있어서 접수를하고 인쇄물도 받았는데 약 650면적의 큰책 3권 쏠 1,630면에 달하는 세미나 논문집(proceedings)을 주는게 아닌가. 어찌 무거운지 가지고 다니기에 난감했다. 시작전에 우선 카테일 파티식으로 간단한 조식 및 케이크 파티가 넓은 홀(호텔의 로비 같은 곳)에서 있었다. 여기에는 2년전 싱가포르에서 만났고 IUSF의 회장이며 브라질 사람인 Ett씨, 오스트랄리아의 회장 Wilson씨, 일본의 林 忠夫선생(70세를 넘은 전 대관공업대학 교수, 89년의 우리 FORUM때도 참석한, 또 싱가포르에서도 만난)등을 만났고, 몇몇 싱가포르에서 만난 사람들도 있었다. 여기에 일본의 오꾸노(奥野製藥)에서 奥野常務 등 관광을 접한 일본인 20명 등이 있었는데, 우리나라는 나 혼자로서 역시 국력의 열세를 실감하였다.

10시에는 개회식이 이 홀의 강당에서 있을 예정이어서 9시50분경에 강당에 들어갔고 강당은 약 1500석 정도의 좌석이 있는 계단식이었으며 외자도 좋은 편이었다. 약 500명의 참석자가 있었다. 10시예정의 개회식이 10시30분경에나 시작되었다. 그때까지 마이크등의 준비물이 다 갖추어지지 않았던 탓이었다. 역시 후진성이 있다는 감을 느꼈다. 약 30명의 합창단의 합창이 끝난후 주최측의 회장, 본회의 회장 및 사무총장 등 6~7명이 단상에서 개회식을 가졌다. 이때 단상의 국기를 보니 20개가 있었는데 한국국기는 보이지 않았다. 다만 대만 국기 같은 것이 두개가 있었다. 개회식이 약

1시간정도였으며, 또한차례의 합창이 있어 좀 지루한 감을 느꼈다. 끝난후 VIP실에서 Ett 회장에게우리 국기가 없으니 어찌된거냐고 항의하니, 미안하게 되었다고 하며, 곧 가지고 오겠다고 약속을 했다. 점심은 각자들의 부담으로 식당과 스내바에서 적절히 사먹도록 되어 있었다.

오후 2시에는 세미나를 하는동안 각국 대표회의가 시작되었다. 브라질을 위시하여, 미국, 영국, 일본, 네덜란드, 스웨덴, 스위스 등의 각국이며, 일본 대표로서는 林 忠夫교수, 早稻田大學의 逢坂교수(두 분 모두 89년에 한국의 아세아포럼에 참석) 및 奥野常務의 3사람이 출석했다. 우리나라에서는 물론 나하나 뿐이었다. 새로이 가입되는 나라는 한국과 아르헨티나이다. 이자리에서 한국이 정식으로 IUSF에 입회되었음을 선언했고, 대표로서의 본인이 또한 소개되었다. 이때 미리 한국에서 李龍德 우리학회 사무국장이 작성해준 영문의 연설문을 IUSF 총무(Secretary General)인 Dr. Gabe에게 주어서 韓國表面工學會의 실정, 규모, 역사등을 알렸다. 다만 또하나의 신입회원인 아르헨티나대표는 이웃 나라이면서도 참석을 하지 않았다. 여기서의 보고에 의하면 340명의 회원이 INTERFINISH 92에 등록을 하였고, 논문발표는 30%가 브라질에서, 65%가 기타의 국가, 5%가 비회원국가에서 발표를 하게 되었다고 한다. 여기서 결정된 사항은 IUSF 공로상의 인물을 Hyden씨로 정했고, 다음의 IUSF총무는 1993년 4월부터 Mr.Wilson이 선정되었다. Mr.Wilson은 89년에 한국 포럼에, 90년 싱가포르의 Asia Pacific IUSF에서, 또한 일본의 모임 등 항상 만나는 학회의 열성분자이다. 다음 4년후인 INTERFINISH 96은 영국의 만체스터에서 한다고 인쇄된 유인물을 가지고 왔고, 이것을 폐막식에서 모두에게 돌리고 있었다. 아마도 INTERFINISH 2000은 독일에서 할 것이라는 이야기다.

오후 1시20분부터 5개의 세미나실에서 발표당 40분씩의 세미나가 시작되었다. 우리나라의 FORUM에서는 1개의 세미나실이였기 때문에 15분씩의 시간만 주었고 나머지 게시형식의 poster

로 대체되었었다. 발표는 5,6,7,8일 오전까지 장장 4일간을 하였다. 모두 5개의 세미나실에서 각분야 별로 동시에 발표하는 바람에 미리 참석할 때마다 미리 포시를 하여 이에따라 매 40분씩 띄엄띄엄있는(실제로 세미나실은 10여개 있는 것 같았다) ALFA, BETA, GAMA, IOTA, ZETA로 표시한 실을 찾아서 참석해야 하므로 극히 분주했다. 세미나실의 의자나 크기는 50석에서 200석까지 다양하며, 의자들도 고급천으로 잘 만들어져 있었다.

논문은 15개국에서 110편의 논문 및 현장기술 발표가 있었는데 이들의 내역을 보면 폐수처리 및 공해문제 5편, 아연 및 아연합금 6편, 무전해니켈 도금 5편, 귀금속도금 7편, 동-니켈-크롬도금 10편, 합금 및 복합도금 12편, 양극산화 7편, 인산염피막 및 기타 화학처리 6편, 표면경화 등 고온처리 9편, 전식(진공,PVD)도금 및 CVD 9편, 연속도금 및 코일 코오팅 6편, 부식 및 방식처리 10편, 경질크롬도금 및 내마모용 코오팅 8편, 유기코오팅 6편, 프린트회로(PCB)도금 9편, 분석 및 시험 6편, 품질관리 3편, 공해문제 3편, 표면처리분야의 인적자원문제 2편 이다. 이것들을 5일 오후부터 8일 오전까지 계속되므로 꼬박 매시간마다 참석 및 질문등 분주히 지냈다. 8일 오후는 2시에 세계적인 학자 Rudzki박사의 전세계의 표면처리 추세를, Brown박사는 세계의 환경문제를 가지고 각각 70~80분간의 강연이 있었다. 이것이 끝난후에 폐막식이 있었다. 이때 폐막식의 단상에는 약속과 같이 20개의 국기중 중간정도에 태극기가 놓여 있었다. 약 1시간 동안의 폐막식이 끝난 직후 단상에 올라가서 Ett 회장에게 태극기를 준비해 주어서 감사하다고 인사를 하였다. 만일 많은 사람들처럼 도중에 귀국 또는 관광차 폐막식을 보지 않았더라면 주최측이 태극기를 애써 준비한 것에 대한 인사도 못하였을 것이어서 끝까지 참석한 것은 참으로 다행이었다. 그후 사진촬영등 기념할 것을 카메라에 담아 두었고, 마침 대만에서 참가한 표면처리 잡지사의 간사이며, 대만의 화학과 대학교수라도 촬영을 하였다.

국제학회에서는 어디서나 그러하듯이 본 세미나

가 열리고 있는 동안에는 참가자의 가족이나 세미나를 이탈하고 관광을 즐길 사람들을 위하여, 별도로 낮과 밤에는 행사가 있었다. 시내 미술관 순례, 시내관광, 이웃해변인 산토스 방문, 야간에 삼바춤, 동물원 구경 등의 코오스가 있었고, 나도 저녁의 삼바춤과 야간 학회의 행사의 하나인 Esporte Club에서의 파티에도 참석 하였다. 이 크럽은 원래 유대인들이 만들었고 그들이 잘 모이는 곳으로서, 원형 이층좌석에 넓은 홀이었다. 별실에서 우선 카테일 파티를 한 후에 본홀로 들어가서 술을 마시면서 검붉은 피부의 중남미 특유의 큰 체구의 미희들이 음악에 맞추어서 삼바춤을 추었고, 이것이 끝난 후에는 참석자들의 사교 댄스가 있었고 끝으로 거의 모든 사람들이 나가서 포크댄스를 하였다. 이

홀은 우리들 약 400여명의 회원들이 독점 사용한 것으로 약 3시간동안 흥겨운 시간을 보냈다.

이 학회의 세미나가 있는 동안 같은 원형 돔의 일부에 표면처리의 전시가 있었다. 출품사는 64개 사였는데 규모를 보아서는 작년의 우리 INPLEM 92보다도 초라했고, 별로 불만한 것이 없었다.

폐수처리 등 몇가지 특이한 것이 있어서 카다로그 등을 가지고 왔다. 즉 수력을 이용한 자동펌프, PP망에 니켈이나 구리도금한 금속회수용 음극 등이다. 여기 한 구석에는 미국표면공학회인 AESF 회장등이 직접 PLATING AND SURFACE FINISHING 잡지나 세미나집 등 과거의 잉여분을 무료로 증정하고 있었다. 나도 몇개 골라서 가져다.